11일 열린 제25회 인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국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장(교육 부문),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대표이사(산업기술 부문), 김주영 소설가(인문사회문학 부문), 강현배 인하대 수학과 교수(자연과학 부문), 김성수 푸르메재단 이사장(공공봉사 부문). 김미옥 동아일보 기자 salt@donga.com

소설가 김주영 등 5명 인촌상

제 25회 인촌상 시상식

각계 350여명 참석해 축하
수상자들엔 각 1억원 상금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제25회 인촌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열렸다. 인촌상은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현승종)와 동아일보사가 제정해 운영한다.

현 이사장은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교육 부문)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대표이사(산업기술) △김주영 소설가(인문사회문학) △강현배 인하대 수학과 교수(자연과학) △김성수 푸르메재단 이사장 겸 '우리마을' 촌장(공공봉사) 등 5명에게 상패와 기념메달, 상금 1억 원을 각각 수여했다.

인촌상은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잇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해마다 인촌 선생의 탄생일인 10월 11일에 맞춰 시상식을 열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99명의 수상자를 냈다.

수상자 명단

- **교육 부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산업기술 부문**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대표이사
- **인문사회문학 부문** 김주영 소설가
- **자연과학 부문** 강현배 인하대 수학과 교수
- **공공봉사 부문** 김성수 푸르메재단 이사장 겸 '우리마을' 촌장

인촌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완규)는 올해 교육, 언론출판, 산업기술, 인문사회문학, 자연과학, 공공봉사 등 6개 부문에 대해 5월 말부터 후보자를 받아 8월까지 24명의 외부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벌여 5개 부문을 선정했다. 언론출판 부문은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인촌상을 제정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께 영예와 격려를 드리는 것은 인촌 선생이 실천하신 공선사후, 민족자강의 참뜻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인촌상을 받으신 다섯 분은 모두 인촌 선생이 구현하고자 한 민족애와 공익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화여대가 일제 치하에서 시련을 겪을 때 인촌 선생은 '이화전문 후원회' 위원으로 이화의 어려움과 함께 하셨다. 상을 받는 분들의 모습에서 인촌정신의 힘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상국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은 "중등교육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인촌상을 받아 서울여상 식구들에게 영광"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기관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정범식 대표이사는 "화학산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한국 화학산업이 친환경소재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설가 김주영 씨는 "살아오는 동안 한 일이라는 것은 거짓말 밖에 없다. 내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가 현실에서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팥으로 메주를 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스스로를 더 추스르고 다스리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현배 교수는 "광복 후 국내 수학자는 단 4명에 그쳤지만 지금은 세계적 수학자들을 보유한 나라가 됐고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도 서울에서 열게 됐다. 이런 모든 것은 선배 수학자들의 공로다. 그들에게 상을 돌린다"고 말했다.

김성수 이사장은 "제 손을 잡아주신 모든 분에게 주는 상"이라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면 그들은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시상식이 수상자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것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큰 보람"이라며 "인촌상은 한층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각 분야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들의 공헌과 성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역대 수상자, 각계 인사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원대 홍주희 국악과 교수가 지도하는 국악앙상블팀과 테너 이동현 교수(성악과)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전승훈 동아일보 기자 raphy@donga.com
황인찬 동아일보 기자 hic@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 hk7048

"입대를 명 받았습니다!" 가수 겸 연기자 비(작은 사진)가 1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소하기 전 1000여 팬들에게 이별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의정부 |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트위터@binyfafa

비, 1000여명 환송 속 눈물의 입대

훈련소 앞 국내외팬들 아침부터 몰려
동행 절친 빽가, 큰소리로 울어 눈길도

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29)가 11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비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내외 팬 1000명의 환송을 받으며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소했다.

비는 306보충대에서 사흘간 교육을 받은 뒤 별도로 지정받은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신병훈련을 거쳐 21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입소 직전 비는 부대 앞 공터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팬들에게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하고 "고맙다. 요란하게 가는 것 같아 죄송하다. 잘 다녀오겠다"며 거수경례로 인사했다.

팬들이 '정지훈'을 연호하자 비는 감정이 북받치는듯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2년간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를 했다. 일부 팬들은 비의 눈물을 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비의 보충대 입대에는 소속사 후배 가수인 엠블랙, 코요태의 멤버 빽가, 연기자 정석원이 동행했다. 평소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진 빽가는 그의 입대 현장에서 유난히 크게 울어 눈길을 끌었다.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는 비가 입대하는 이날, 306보충대 앞은 큰 혼잡이 빚어졌다. 한국 팬들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포르와 멀리 페루에서 찾아온 해외 팬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이른 아침부터 모였다.

또한 국내 연예매체와 지상파 뉴스, 해외 취재진 등도 약 200여명이 몰렸다. 입대 시간이 임박해지면서 부대 앞이 혼잡해지자 보충대 병력 외에 경찰까지 출동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케이블·위성 채널인 tvN은 이날 비의 입대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비는 입대 직전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다. 보충대 입소 이틀 전까지 광고촬영을 진행하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자신이 주연한 영화 '비상:태양 가까이'의 프로모션에 참여했다. 또한 9일에는 강남한류페스티벌에 참가해 서울 영동대로에서 2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되는 공연을 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스타 온라인

강원래 아내 김송 "잠실대교서 추락한 동생…"

가수 강원래의 아내인 김송의 쌍둥이 동생이 서울 잠실대교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송은 11일 자신의 트위터(@song9170)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려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김송은 이날 자신의 이란성 쌍둥이 동생 김 모 씨가 잠실대교 위에서 추락, 운동하는 사람들이 발견해 구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고로 폐에 물이 들어가 폐렴으로 악화해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면서 "힘내라. 좋은 소식이 있도록 기도하겠다"며 위로와 격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래원 "술집 종업원 폭행 논란 죄송…"

"불미스러운 일, 죄송합니다."

배우 김래원이 최근 불거진 술집 여종업원과의 폭행 논란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직접 사과했다. 그는 11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천일의 약속'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동료 배우와 제작진 모두에게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래원은 9월 29일 오전 서울 청담동에 있는 속칭 '텐프로'라는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20대 여종업원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김래원에게 밀려 여종업원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지자, 소속사는 이를 부인하고 현장의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말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소 반듯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던 김래원이 고급 룸살롱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게시판에는 그에 대해 실망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이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래원은 폭행 논란 이후 처음 나서는 공식 행사인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이유가 어찌됐건 지금 드라마에 온 힘을 다하고 있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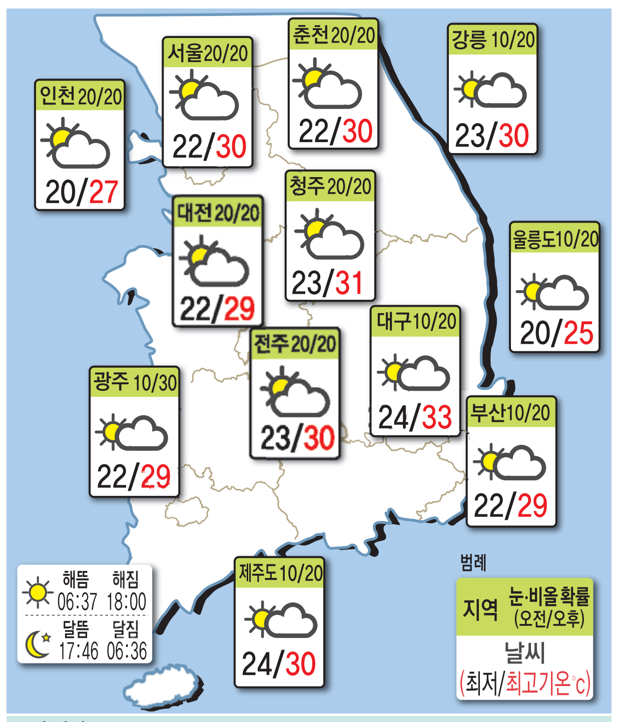
스타 가라사대

배우 고소영 "원할까요? 더 어리고 예쁜 친구들이 많잖아요."

11일 가수 비가 입대한 가운데 케이블채널 tvN 'E new'가 전한 지난 9일 비의 마지막 콘서트와 환송파티 현장에서 "면회를 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의 날씨

10월 12일 수요일 (음력 9월 16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13일(목)	13/23	9/21	10/23	13/25	13/25	17/24
14일(금)	14/18	12/19	14/19	15/19	15/21	19/21
15일(토)	12/19	10/18	13/19	13/20	12/20	16/20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편집인 송대근
인쇄인 최맹호
편집국장 이성춘
광고국장 이승욱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9
스포츠1부 02 2020 1052
스포츠2부 02 2020 1051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사진부 02 2020 1068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